

산업보건영역에서도 이제 일(직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생각해 볼 때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 박 정 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work)이란 자신의 가치, 가족으로부터의 인정, 지역사회 내에서의 입지, 재산 증식, 사회 참여 수단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산업보건 전문가들은 주로 일(직업)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즉 직업병의 원인으로서의 일의 역할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보이고 집중해 왔다. 그래서 일의 유해성과 그로 인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측면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2008년 영국 HSE에서 발간한 Dame Carol Black의 보고서 'Working for a healthier tomorrow'를 읽다 보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Dame Carol Black은 보고서 1장 서론에 "일이 (건강문제를 야기하여) 장기간의 실업과 장기적인 상병결근 등 나쁜 영향을 가져온다는 과거의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최근의 연구결과는 일이 건강에 좋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Dame Carol Black은 일하는 사람(worker)을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치거나 병이 나서 일을 떠나 있는 사람들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Dame Carol Black은 일하는 가족이 없는 가정은 저소득과 가난을 더욱 더 많이 겪고 있고 또 부모의 저소득이 자녀들의 나쁜 건강상태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일을 해야 본인과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업무적합성(fitness for work)’ 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널리 퍼져 있는 인식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 100% 완전하지 못하면 일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건강에 문제가 있는 채로 일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회복을 방해 한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최근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루 빨리 일자리로 돌아가도록 권하고 있다.

물론 영국 정부가 Dame Carol Black에게 이 보고서의 작성을 맡긴데는 영국만의 독특한 보건 의료체계인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가 빚어낸 부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경제적 손실이 배경이 되고 있다. 즉 누구에게나 즉시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를 통해 질병으로 진단받은 근로손실일 수는 2006년 당시 약 1억 7천5백만 일이나 되고, 상병결근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액이 무려 1,000억 파운드(한화로 178조원 가량)를 넘어 국가보건서비스(NHS) 시스템의 1년 예산을 상회하며 포르투갈의 총 GDP와 맞먹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산업의학(Occupational Health)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영국의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들로 하여금 더 이상 질병진단서(sick note)로 상병결근자를 많이 생산해내지 말고 업무적합성에 대한 진단서(fit note)를 작성하게 하여 가급적 빨리 건강문제가 있는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과 국가보건의료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관계자들에게도 크게 시사하는 점이 이 보고서에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최근의 연구들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과 건강 간의 긍정적 연관성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일을 건강유해요인만으로 보지 않고 관점을 반대로 돌려 건강의 필수요인으로 보면서,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깨트리고 있으며 적절한 직장복귀가 건강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주변에서도 산재로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받는 근로자 중에서 조기재활치료를 하지 않고, 직장 복귀를 미룰 때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직장복귀도 실패하는 예를 드물지 않게 본다.

그 밖의 시사점으로는 근로자 건강과 복지를 위해 투자하면 사업주에게 오는 편익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 주는 탄탄한 연구 모델이 있어야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업 투자에 대한 사업주들의 이해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역할을 더 확장하여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대표가 그러는 것처럼 사업주가 건강과 복지를 위해 투자하여 더 많은 이득을 얻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시사점으로는 건강과 복지는 의학적인 이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고용된 (또는 위촉된) 의료인보다 생산 라인의 관리자들이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 보고서의 주장도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 포인트이다. 즉 라인 관리를 잘하면 근로자의 건강도 잘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인 관리자들은 매일매일 근로자들의 컨디션을 눈으로 살필 수 있으며,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근로자들을 즉시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산업보건 전문가들도 지금까지의 사업장 작업환경관리와 작업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를 통한 전통적인 산업보건활동으로 주어진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을 뛰어 넘어 사업주가 '건강한 근로자가 곧 건강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근로자 건강과 복지를 위해 투자하도록 비용-편익의 구체적인 근거를 보여 주며 설득하는 것을 산업보건 전문가들의 중요한 역할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